기억 프로젝트

밥 잘 챙기 무라

이현수·윤말자 부부의 쉰 날의 기억

이 이야기는 가상의 인물을 바탕으로 한 마케팅 예시입니다

비비드 에디션

작가의 글

가상 인물 고지: 이 책에 담긴 이야기는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의 부부를 바탕으로 제작된 마케팅 예시입니다. 이름, 고향, 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실제 흐름과 정합하도록 구성했으나 특정 개인·가족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쓴 것이 아니라, 옮긴 것입니다.

두 분 앞에 앉아서 한 것은 질문 오십 개를 하루에 하나씩 여쭙는 일뿐이었습니다. 태어난 곳은 어떤 동네였는지,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는지, 배우자를 처음 만난 날은 어땠는지. 어떤 날은 대답이 짧았습니다. "고마 됐다, 그 정도면." 어떤 날은 대답이 길어서 녹음기를 몇 번 더 돌려야 했습니다.

작가가 한 일은 그 대답을 고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현수 씨는 문장 끝을 흐리는 버릇이 있고, 힘든 이야기가 나오면 창밖을 한참 보다가 짧게 끝맺습니다. 윤말자 씨는 반대로, 아픈 이야기일수록 국그릇을 젓던 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결국 끝까지 말을 잇습니다. 이 두 가지 말버릇은 이 책에서 지우지 않았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리는 아낀 채로, 말을 다 쏟아내는 자리는 쏟아낸 채로 두었습니다. 그것이 두 분이 평생을 두고 다듬어 온 이야기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작가의 의견이 없습니다. 감상도, 교훈도, 정리도 없습니다. 대신 같은 날 던진 같은 질문에 두 분이 각자 내놓은 대답을 나란히 두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두 분의 기억은 자주 어긋났습니다. 국

수집에서 먼저 다가간 사람이 누구였는지, IMF 시절 가게를 지킨 것이 누구의 힘이었는지, 첫아이가 태어난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 두 분의 대답은 서로 달랐습니다. 이 책은 그 어긋남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마흔여섯 해를 함께 산 부부의 기억이 정확히 포개지지 않는 것은 결함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세월을 살아냈다는 증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밝혀둡니다. 이 책에 나오는 직접 인용은 전부 두 분이 실제로 하신 말씀에서 가져왔습니다. 새로 지어낸 대사는 한 줄도 없습니다. 작가가 보탠 것이 있다면 그 말씀들 사이의 여백 — 시간이 흘렀다는 것, 계절이 바뀌었다는 것, 한 문장에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다리뿐입니다.

두 분의 목소리가 이 책을 읽는 동안 조금이라도 원래의 무게 그대로 전해진다면, 그것으로 이 작업은 다 한 것입니다.

프롤로그

정릉 골목 안쪽, 텃밭이 딸린 낡은 집 한 채가 있다. 아침이면 노인이 텃밭에 나가 상추 이랑을 살피고, 오후가 되면 부부는 나란히 경로당에 다녀온다. 저녁 밥상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차려진다. 오십 년 가까운 세월 동안 반복되어 온 하루다.

이 집에 두 개의 목소리가 있다.

하나는 산에서 왔다. 경상북도 안동, 앞에도 산이고 뒤에도 산이던 마을에서 태어나 열여덟에 지게를 내려놓고 서울로 왔다. 말이 적고, 힘든 일일수록 입을 다무는 사람이다.

다른 하나는 바다에서 왔다. 전라남도 고흥, 유자꽃 향이 봄마다 흩날리던 마을에서 태어나 열여섯에 고향을 떠났다. 말이 많고, 아픈 일일수록 끝까지 말을 잇는 사람이다.

1980년 가을, 정릉의 한 시장 골목에서 두 사람은 만났다. 그 뒤로 마흔여섯 해, 같은 지붕 아래서 같은 밥상을 차려왔다. 아이 둘을 키웠고, 손주 둘을 안았고, 가게 셔터가 며칠씩 내려간 겨울도 지나왔다.

이 책은 그 마흔여섯 해를 두 사람의 목소리로 각각 듣는 기록입니다. 같은 날짜에 같은 질문을 두 사람에게 던졌습니다. 산에서 온 목소리와 바다에서 온 목소리는 자주 서로 다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이 책이 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두 사람

은 같은 사건을 각자 다르게 기억하면서도, 마흔여섯 해 동안 결국 같은 밥상 앞에 함께 앉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목소리를 들으실 차례입니다. 먼저, 두 사람이 태어난 곳으로 갑니다.

01

산과 바다

DAY 01

겨울 새벽, 마당에서 소죽 끓는 냄새가 났다. 여물이 삶아지며 올라오던 그 김, 코끝이 아리도록 훅 끼쳐오던 냄새가 그의 가장 오래된 기억이다. 오십 년도 더 지난 지금, 두 사람에게 태어난 곳을 물었다. 대답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왔다.

이현수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앞에도 산이고 뒤에도 산인 마을이었다. "산이, 앞에도 산이고 뒤에도 산이고." 그가 태어난 자리를 설명할 때 쓰는 말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1951년, 전쟁이 난 이듬해였다. 그 전해 여름,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국군과 인민군이 밀고 밀리기를 거듭했다. 산간의 길안면도 그 소란을 완전히 비켜가지는 못했다. "어무이가 피난 갔다가 다시 마을로 들어와가 날 낳았다 카데요." 본인은 그 이야기를 몸으로 겪지 않았다. "나는 뭐 그거는 다 들은 얘기고, 기억은 없니더." 그래도 하도 여러 번 들어서 직접 겪은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했다.

길안면에서는 산 하나를 넘어야 이웃 마을이 나왔다. 학교에 가는 길도 마찬가지였다. 새벽에 집을 나서면 산길이 아직 어두웠다. 봄이면 산나물을 뜯고 가을이면 밤을 주웠다. 겨울 군불은 산에서 해 온 솔가지로 땠다. 집은 초가였고, 마당 한편에는 늘 소가 한 마리 매여 있었다.

말이 많은 집이 아니었다. 밭일과 나무 지는 일을 거드는 동안에는 말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다. 형제들도 대체로 조용했다. 그는 어릴 적

부터 그런 침묵 속에서 자랐다. 위로 형이 하나 있었다. 그 형과의 이야기는 뒤에 다시 나온다.

여름이면 장마가 산길을 미끄럽게 했고, 가을이면 벼 대신 밭작물을 거두는 손이 바빴다. 사계절이 뚜렷했지만 어느 계절도 한가하지는 않았다.

골목을 물었을 때, 그는 먼저 고개를 저었다. "그런 골목이 없었니더 거는. 그냥 산길이지." 그러다 뒤늦게 하나가 떠올랐다는 듯 말을 이었다.

> "눈 감으마 그기부터 나니더. 골목보다 그기 먼저."

겨울 새벽마다 마당에서 나던 소죽 냄새, 김이 훅 올라오던 그 순간이었다. 가마솥에 여물을 안치고 불을 지피면 마당 전체가 잠시 따뜻해지는 듯했다. 그 김이 걷히고 나면 다시 냉기가 돌아왔다. 안동 길안면에는 사진첩에 담길 만한 풍경이 따로 없었다. 골목도 없고 담장도 변변찮았다. 대신 냄새 하나가 칠십 년 가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때는, 그때는 다 그런 것이었다.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장터도 산을 몇 개 넘어야 나왔다. 그 길을 걸어본 것은 명절이나 큰 볼일이 있을 때뿐이었다. 훗날 그가 열여덟 살에 서울로 향하던 길도 결국 그 산길의 연장이었다. 매일 넘던 산이 언젠가 마을을 완전히 떠나는 길이 되리라는 것을, 그때는 알 수 없었다.

같은 시절, 남쪽 바닷가에서는 또 한 사람이 자라고 있었다.

윤말자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유자밭이 많고 바닷바람이 늘 불어오던 동네였다. 봄이면 유자꽃이 허옇게 피었고, 그 향은 달달하면서도 알싸했다. 오십 년 가까이 서울에 살면서도 봄만 되면 그 냄새가 문득문득 되살아난다고 했다.

"우리 집이 오남매였는디 나는 넷째, 딸이여. 위로 오빠가 둘, 언니 하나, 밑에 남동생 하나 있었제." 아버지는 마늘 농사를 조금 지었지만, 그 이야기는 뒤로 미뤄졌다. "아부지는 마늘 농사도 쪼까 지셨는디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밭과 부엌을 오갔다. 집안일은 늘 손이 많이 갔다. 형제가 많으니 밥상을 차리는 것도, 빨래를 너는 것도 한 사람 일이 아니었다.

새벽마다 물지게를 지고 우물까지 걸어가던 그녀의 발걸음 소리도 여전했다. "발걸음 소리가 자박자박, 그것도 아직 귀에 있당께." 물동이를 채워 돌아오는 길에는 이미 해가 떠 있곤 했다. 우물가에는 이웃 아낙들이 먼저 나와 있는 날도 많았다. 빨래를 두드리는 소리와 두런거리는 말소리가 아침마다 우물 근처를 채웠다.

가을이면 유자를 따는 철이 왔다. 마당의 유자나무 서너 그루에서 나는 것만으로도 겨우내 먹을 유자청을 담글 수 있었다. 넷째 딸의 자리는 대체로 정해져 있었다. 손위 형제들 심부름을 하고, 손아래 남동생을 건사하고, 어머니 곁에서 잔일을 거들었다.

눈을 감으면 그 골목이 그대로 보인다고 했다. 정지 문을 열면 바로 마당이었다. "정지 문 열면 바로 마당이고, 마당 지나면 유자나무 서너 그루, 그 옆으로 우물 가는 길이 쭉 나 있었제." 마당 너머로는 늘 바다 냄새가 실려 왔다. 파도 소리가 크게 들리는 동네는 아니었지만, 바람이 짠 기운을 늘 조금씩 묻혀 왔다. 오빠 이야기를 하다 말고 그녀는 잠시 멈췄다. "아 근디 이 얘기 하다 본께 우리 오빠 생각이 나부는디, 그것도 이따 다른 날 해야 쓰겄다." 기억은 순서를 지키지 않고, 하나를 말하다 보면 다른 것이 자꾸 끼어들었다.

고흥은 바다 냄새와 유자 냄새가 함께 나는 동네였다. "겁나 오래된 얘긴디도 어제 일 같단 말이여."

산에서 온 아이의 첫 기억도, 바다에서 온 아이의 첫 기억도 냄새였다. 여물 삶는 냄새와 유자꽃 향은 서로 만난 적이 없는 냄새였다. 한쪽은 산나물과 솔가지의 냄새로, 한쪽은 바닷바람과 유자꽃의 향으로 유년을 지나왔다. 한 아이는 산 하나를 넘어야 학교에 닿았고, 한 아이는 우물 하나를 오가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두 냄새가 한 밥상 위에서 만나기까지는, 아직 스물아홉 해가 더 남아 있었다.

02

손이 쉴 새 없던 사람

DAY 03

봄이면 밥에 깻묵을 섞었다. 쌀이 모자란 계절이었다. 밥이라 부르기도 뭐한 그 냄새가 아직도 난다고, 그는 말했다. 두 사람에게 어머니를 물었을 때, 둘 다 먼저 손 이야기부터 꺼냈다.

이현수

"어무이는 말이 없는 분이셨니더. 나캉 비슷했지 싶어예, 그기." 그가 말을 아끼는 버릇이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면, 대개 이 대답이 돌아온다.

보릿고개는 해마다 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왔다. 겨우내 먹던 쌀이 바닥을 보이는 사월과 오월, 밥에는 깻묵과 나물이 섞였다. "그 냄새가, 밥이라 카기도 뭐한 그 냄새가 아직도 나니더." 산나물을 캐다 죽을 쑤어 양을 늘리는 집도 있었고, 겉보리를 몇 번이고 절구에 찧어 밥을 늘리는 집도 있었다. 그의 집도 다르지 않았다. 형제들 밥그릇에는 먼저 담아주고, 당신 그릇에는 늘 적게 담던 것이 그의 어머니였다. 그때는 그것이 왜 그런 건지 몰랐다. 자식들 배를 먼저 채우고 남는 것으로 당신 배를 채우는 어른들이, 그 마을에는 한둘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주로 밭일을 하고 산에 나무를 하러 다녔다. 어머니는 밭일과 살림을 함께 맡았다. 두 분 다 말수가 적었다. 저녁 밥상에서도 그날 있었던 일을 시시콜콜 늘어놓는 법이 없었다.

말씀은 많지 않았지만 자주 하시던 말 하나가 있었다. "그기 다 그른 기라." 뭘 잃어도, 뭐가 안 돼도 그 말이었다. 흉년이 들었을 때도, 소가 아팠을 때도, 그 말 한마디로 넘어가곤 했다. 지금도 그가 종종 쓰는 그 말은, 알고 보면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말이었다. 아들이 말을 아

끼는 것도, 그 아낀 말 속에 체념 아닌 체념을 담는 것도 어머니에게서 온 것이었다.

1977년,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공사판으로 떠났다. 집을 나서기 전날 밤, 어머니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듬해인 1978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소식은 편지로 왔다. 국제전화가 귀하던 시절, 사막 한가운데의 숙소로 편지 한 통이 도착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렸다. 편지를 열었을 때는 이미 삼우제도 지난 뒤였다.

그 대목에서 그는 한참 말이 없었다.

> "임종도 못 지키고 장례도 못 지킨 자식이 뭐 할 말이 있겠니껴." 그기 다 그른기라, 그는 다시 그 말을 썼다. 어머니의 말이 아들의 말이 되어 있었다. "냅두라, 그 얘기는."

윤말자

새벽 첫닭이 울기도 전에 정지에서 뭔가를 하고 계시던 어머니였다. 오남매를 키우며 하루를 두 번 사는 사람처럼 바빴다. "여름 되믄 밭일 새벽에 다 해놓고 오전 참에 밥 채리고, 오후에 또 밭에 나가고, 하루를 두 번 사는 사람맹키로 바빴제." 겨울에는 물레질과 바느질로 밤을 보냈다. 오남매를 키우면서 힘들지 않았을 리 없다고, 그녀는 지나가듯 덧붙였다.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다. "몸 안 아픈 게 부자여." 어릴 적엔 그 말이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지금은 그 말이 딱 맞다고 그녀는 말했다.

밥은 언제나 자식들 먼저 퍼주고 당신은 나중에, 그것도 제일 적은 밥그릇에 담았다. 유자꽃 피는 봄이면 밥이 부족해 나물죽으로 끼니를 때우던 날도 있었다. 그런 날에도 어머니의 밥그릇은 늘 자식들 것보다 작았다.

형제끼리 다투는 날이면 어머니는 큰소리 한 번 없이 한마디만 했다. "느그들 배고파서 그러냐, 밥 더 줄까." 그 말이면 다투던 것도 슬그머니 잦아들었다. 오남매를 그런 식으로 화해시키는 것이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매질도, 언성도 필요하지 않았다.

친정어머니의 마지막 길은 그녀도 지키지 못했다. 그때 그녀는 안동, 시댁 어른들을 뵈러 가 있었다. 하필 그 사이의 일이었다. 며느리로서의 도리와 딸로서의 도리가 같은 시기에 겹쳤을 때, 그녀는 시댁 쪽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가실 때는 내가 못 지켰어." 그 말을 하고서 그녀는 국그릇을 젓던 손을 멈추고 한동안 숨을 골랐다. 평소 말이 많은 그녀에게는 드문 침묵이었다. 그러고서야 다시 말을 이었다.

손이 시린 날이면 지금도 그 어머니의 손이 떠오른다고 했다. "손 시린 날이면 그 양반 손 생각이 난당께, 겁나게 거칠었는디 따땃했어." 물일과 밭일로 갈라진 손이었지만, 그 손을 잡으면 늘 따뜻했다고 했다.

두 사람에게 어머니를 물었을 때, 대답이 시작되는 방식도 서로 달랐다. 그는 몇 마디로 어머니를 요약한 뒤 나머지는 침묵으로 채웠다. 그녀는 어머니의 하루 전체를 복원하듯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려냈다. 한쪽은 어머니를 한 문장으로 남겼고, 한쪽은 어머니를 하루의 리듬으로 남겼다.

한 사람은 사우디 사막에서, 한 사람은 안동 시댁에서 —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어머니를 떠나보냈다. 임종을 지키지 못한 자식이라는 사실만은, 두 사람이 부부가 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서로 닮아 있었다. 훗날 이 부부가 물려받게 될 것은, 두 어머니가 남긴 두 개의 짧은 문장이었다. 그기 다 그른기라, 그리고 몸 안 아픈 게 부자여.

03

딸이라서, 차남이라서

DAY 09 · DAY 16

지게를 지고 산길을 오르내리던 열세 살 아이가 있었다. 형은 중학교에 다녔고, 그는 나무를 했다. 같은 시절 남쪽 바닷가에서는, 오빠가 광주로 유학을 떠나고 여동생이 그 자리에 남았다. 그 시절, 형제가 많은 집에서는 누군가 하나가 남아야 나머지가 나아갈 수 있었다.

이현수

꿈이 무엇이었냐는 물음에, 그는 먼저 잠깐 웃었다. "그런 거 생각할 처지가 아니었니더." 국민학교를 졸업한 것이 열세 살, 차남이었다. 형은 읍내 중학교에 갔고, 그는 농사와 나무하기를 이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줄로만 알았다. 형이 장남이니 먼저라는 것은, 그 산골 마을에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 순서였다. 형제가 다 같이 중학교에 다니는 집은 그 마을에 거의 없었다.

억울했느냐고 물으면 대답이 갈렸다. "아이다, 억울했나. 모르겠니더 인제는." 지게를 지고 산길을 오르내릴 때마다 든 생각은 단순했다. 여기가 아니면 어디든 상관없다는 생각, 그뿐이었다. 딴 데가 어딘지도 몰랐다. 그냥 여기만 아니면 됐다.

열여덟 살 되던 해, 먼저 상경한 형에게서 편지가 왔다. 형은 몇 해 전 청계천 쪽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했다. 편지에는 짧은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서울 오면 밥은 굶지 않는다." 대단할 것 없는 그 한 줄이, 그에게는 꿈이라 부를 수 있는 전부였다. 그 한 줄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 꿈은 오래 기다릴 것도 없이 현실이 되었다. 1969년, 열여덟 살의 그는 청계천 평화시장 봉제공장에 시다로 들어갔다. 문을 열자마자 미

싱 수십 대가 한꺼번에 돌아가는 소리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재봉틀 기름 냄새라는 기 그런 긴 줄 그때 처음 알았니더." 안동에서는 미싱이라는 것을 구경조차 못 해본 터였다. "억수로 시끄럽고, 억수로 빨랐니더."

시다가 하는 일은 실 나르고 옷감 나르는 것, 그러다 어른들에게 욕을 먹는 것이었다. "하루 죙일 서가 일했니더, 앉을 새도 없었니더." 잠은 공장 다락방에서 다른 시다들과 함께 잤다.

첫 월급은 얼마 되지 않았다. 반은 시골집으로 부쳤다. 나머지로 무엇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았는데, 하나만은 떠올랐다. "고무신 하나 새로 샀니더." 서울에 가서 정말 밥은 굶지 않았다. 그거 하나는 맞았다. "그기 다 그른기라, 큰 꿈 없이도 사는 기." 형은 형대로, 그는 그대로 살아갔다. "형은 형대로, 나는 나대로 살았지예."

윤말자

국민학교를 졸업하던 해, 바로 위 오빠가 광주로 유학을 떠났다. 그녀는 집에 남아 살림과 농사를 거들었다. "긍께 그것이, 오빠 학비 댈라믄 누구 하나는 남아야 헌다는 게 우리 집 방식이었어." 그것이 그 시절, 딸이 있는 집의 셈법이었다.

더 다니고 싶다는 말은 입 밖에 내지 못했다. 딸이라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언니는 이미 시집갈 나이라 그런 이야기는 신경 쓰지 않았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그녀 하나였다. 지금 생각하면 억울할 것도 없는 일인데, 그때는 서운했다. "지금 생각하믄 억울한 것도 아닌디

그때는 그렇게 서운하더라고, 근디 서운하다고 말도 못 허고." 서운함조차 입 밖에 낼 자리가 없었다.

그 마음은 오래 남았다. 지금도 손주들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뒷모습을 보면 그 시절 생각이 잠깐씩 스친다고 했다. "그 생각이 잠깐씩 스치기는 해. 근디 후회는 아니여, 그냥 그런 시절이었응께."

오빠가 광주에서 편지를 보내오면, 어머니가 그 편지를 읽어주는 옆에서 듣기만 했다. "엄니가 편지 읽어주실 때 옆에서 듣기만 했제." 봉투에 붙은 우표를 오래 들여다보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나도 저런 데 가보고 싶다." 그 정도가 그때 품을 수 있던 꿈의 전부였다.

그 바람도 몇 해 뒤 현실이 되었다. "아이고 그날 얘기하믄 겁나 기네, 각오하고 들어." 1974년, 열여섯 살의 그녀는 사촌언니의 소개로 구로공단 방직공장에 올라갔다. 편지를 받고 며칠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무섭기도, 설레기도 했다.

기숙사 방에 들어서자 솜먼지 냄새가 확 끼쳤다. "그것이 그 공장 냄새여, 지금도 그 냄새 맡으믄 딱 그때가 생각난당께." 방 하나에 여섯 명, 다들 그녀처럼 시골에서 올라온 아이들이었다. 밤에 누우면 방직기 셔틀 오가는 소리가 밤새 들렸다. "방직기 셔틀 왔다갔다 하는 소리가 밤새 들렸어, 철컥철컥." 처음엔 그 소리에 잠을 설쳤지만, 나중엔 그 소리가 없으면 오히려 잠이 오지 않았다. 밥은 매일 꽁보리밥에 단무지였다. 그때는 배가 고팠으므로, 그것도 맛있었다.

첫 월급은 전부 고향으로, 어머니 앞으로 부쳤다. "그거 받아갖고 고향으로 부쳤어, 우리 엄니 앞으로." 조금 익숙해진 뒤에야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샀다. 그 무렵부터 공장 일이 끝난 밤이면 야간 학급에도 다니기 시작했다. 오빠 편지 봉투의 우표를 들여다보던 소녀가, 이번엔 스스로 배우는 자리에 앉았다. "겁나 피곤했는디 그래도 재밌었어, 배운다는 게."

그 시절을 묻자 두 사람 다 첫마디는 비슷했다. 꿈이라 할 것이 없었다는 말, 그런 것을 생각할 처지가 아니었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 문장에서 두 사람은 갈라졌다. 그는 자신이 포기한 것에 대해 더는 묻지 않았고, 그녀는 자신이 포기한 것을 몇 번이고 다른 말로 되짚었다.

한 사람은 차남이라 중학교를 형에게 내주었고, 한 사람은 딸이라 유학을 오빠에게 내주었다. 그리고 몇 해 뒤, 한 사람은 미싱 소리 속에서, 한 사람은 방직기 소리 속에서 첫 월급을 받아 각자의 고향으로 부쳤다. 둘 다 자기 몫의 배움을 어딘가에 남겨두고 서울로 온 사람들이었다. 두 사람은 아직 서로의 이름도 몰랐다.

04

국수집 골목

DAY 21

정릉 시장통은 오전이면 좌판이 늘어서고 저녁이면 국수집 미닫이문 사이로 김이 새어 나오는 골목이었다. 멸치육수 끓는 냄새가 그 골목 끝까지 퍼지던 시절이 있었다. 두 사람은 그 냄새를 각자 다르게 기억한다. 누가 먼저였는지도 서로 다르게 기억한다. 이 장은 그 두 기억을 나란히 둘 뿐, 어느 쪽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

이현수

1980년 가을, 사우디에서 돌아와 정릉에 철물점을 낸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다. 그 무렵 정릉 시장 골목에는 그처럼 중동에서 돈을 모아 돌아와 작은 가게를 낸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 옆 골목에 국수집이 있었다. 좁은 나무 의자 몇 개와 낡은 탁자가 전부인 작은 집이었다. 점심때가 되면 어김없이 그리로 향했다.

처음엔 그저 국수가 맛있어서라고 했다. 그러다 말을 고쳤다.

> "아이다, 그게 아이고. 그 사람이 손이 야무졌니더. 국수 담는 것만 봐도 알겠데예."

말이 많은 사람이었다. 자신과는 정반대였다. 그런데 그것이 싫지 않았다. 자신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채워주었기 때문이다. 가게 문을 일찍 닫고 국수 한 그릇을 먹으러 가는 날이 조금씩 늘었다.

몇 달을 그렇게 국수만 사 먹으러 다니던 어느 날, 국수집 아주머니가 한마디 던졌다. "총각, 국수 묵으로 오는 기가 말자 보러 오는 기가."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얼굴만 벌게가 나왔니더 그날은."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갑자기 말수가 줄었다. "낯간지럽니더. 고마 됐다, 그 정도만 하시더." 그래도 결혼이 이듬해 봄이었다는 것, 그때 자신이 가진 전부가 무엇이었는지는 밝혔다. "사우디서 3년 벌어온 돈캉, 가게 하나캉, 그기 내가 가진 전부였니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한 사람은 그녀였다. "그래도 그 사람은 그거면 됐다 캤니더."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더 자세한 거는 그 사람한테 물으이소, 그 사람이 훨씬 잘 얘기할 낍니더."

윤말자

"아이고메 참말로, 이 얘기 하믄 나 혼자 신나부러." 같은 해 가을, 그녀는 이모가 하던 국수집에서 일을 거들고 있었다. 부엌 안쪽에서 손님 상을 나르고 그릇을 씻는 것이 그녀의 하루였다. 국수를 마는 손놀림이 야무지다는 말을 손님들에게 종종 들었다. 어느 날부터 옆 골목 철물점을 한다는 남자가 국수를 자주 먹으러 왔다. 얼굴이 새까맣게 타 있었다. "얼굴이 아 겁나게 까맣게 타 갖고, 서울 사람 같지가 않더라고." 나중에야 사우디에서 몇 년을 있다가 막 돌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이모가 그에게 놀리듯 말했다. "총각, 국수 묵으러 오는 기여 말자 보러 오는 기여." 그 말을 들은 남자의 얼굴이 그날 홍당무가 되었다. 그것을 보고 그녀도 속으로 알았다. 이 사람이 자신 때문에 오는구나, 하고.

육수 냄새가 풍기는 부엌에서 국수를 말며 멸치를 몇 개 더 얹어주었다.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그것이 시작이었나 보다고 그녀는 말했다.

첫인상을 물었을 때는 이렇게 답했다. "말은 별로 없는디 눈빛이 순했어."

그런데 그녀는 이 대목에서 다른 말을 보탰다. "지가 먼저 다가갔다고 기억하겄제." 남편은 아마 그렇게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나는 분명히 내가 국수 더 챙겨준 게 먼저였다고 기억한당께."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그런 건 서로 기억이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겄어."

이 이야기를 할 때 두 사람의 태도는 사뭇 달랐다. 그는 짧게 답하고 손사래를 치며 화제를 돌리려 했다. 그녀는 반대로, 한 번 말문이 트이자 옆에서 말릴 새도 없이 그날의 부엌 풍경까지 세세히 풀어놓았다. 마흔여섯 해 전의 국수 한 그릇을 두고, 한쪽은 아끼고 한쪽은 아낌없이 꺼내 보였다.

두 사람의 기억 속에서, 국수집 아주머니가 던진 한마디만은 똑같이 남아 있다. 다만 그 말이 나오기 전, 누가 먼저 상대를 향해 손을 내밀었는지는 마흔여섯 해가 지난 지금도 합의되지 않았다. 그가 국수를 먹으러 간 것이 먼저였는지, 그녀가 멸치를 더 얹어준 것이 먼저였는지 — 이 책은 그 순서를 정하지 않는다. 확실한 것은 하나뿐이다. 어느 가을날, 멸치 몇 개가 더 얹힌 국수 한 그릇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국수 한 그릇이 마흔여섯 해를 이어왔다는 것.

05

자부심의 자리

DAY 24

사막의 낮은 뜨거웠고 밤은 서늘했다. 양철통에 담긴 물은 하루 종일 미지근한 채로 손에 있었다. 마흔아홉 해가 지난 지금, 평생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을 물었을 때 두 사람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런데 두 순간 모두, 자랑의 자리에는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의 얼굴이 함께 있었다.

이현수

1977년,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현대건설이 대형 산업항 공사를 벌이던 곳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노동자들이 콘크리트를 치고 철근을 날랐다. 함바에서 나눠주는 밥은 늘 부족한 듯 느껴졌고, 고향에서 온 편지는 몇 달에 한 번 도착할까 말까 했다. 물은 특히 귀했다. "양철통에 담긴 물, 미지근한 그거 하나 받아가 하루 종일 아껴 마셨니더." "지금 생각하마 그기 뭐라고." 그는 웃었다. 발전기와 해머 소리는 밤낮없이 울렸고, 지금도 그 소리를 떠올리면 귀가 웅웅거리는 것 같다고 했다.

삼 년을 그렇게 있다가 돈을 모아 귀국했다. 그 돈으로 정릉에 철물점을 냈다. "내 이름 걸고." 간판을 올리던 날, 그는 자신의 이름 석 자가 나무판에 새겨지는 것을 오래 지켜보았다고 했다. 문을 열던 날, 진열대에 못과 철사를 정리하며 맡은 냄새를 그는 아직 기억한다. "그기 참 좋았니더." 산골에서 무일푼으로 상경한 사람이 서울 한복판에 자기 가게를 낸 것이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을 물었다.

그는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 "어무이지예."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다.

> "자부심이라 카마 그기 젤 자부심이고, 그기 젤 아픈 기고. 같은 기라예, 그기."

윤말자

"나는 딱 하나여, 우리 아들딸 둘 다 대학 보낸 거." 자부심을 물었을 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방직공장을 그만두고 국수집 일을 하다 결혼한 뒤에도 살림은 늘 빠듯했다. 아이 둘을 키우며 학비와 생활비를 동시에 감당하는 살림이었다. 그래도 아이들 학비만은 밀리지 않게 하려고 안 해본 부업이 없었다. "스웨터도 뜨고, 나중엔 신문도 돌리고." 그거 하나는 참말로 잘했다 싶다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기듯 말했다.

큰아이의 대학 합격 통지를 받던 날,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어머니였다. "나는 학교 더 못 댕겼는디 내 새끼는 댕기는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남편은 그날 별말 없이 씩 웃기만 했다. 그러다 평소 하지 않던 일을 했다. 가게 문을 일찍 닫고 통닭을 사 온 것이었다. 봉투를 든 채 말없이 식탁에 앉는 그 모습이 그 사람 나름의 축하였다. 자식

들은 아버지가 웬일이냐며 좋아했고, 그녀는 그 옆에서 그저 웃기만 했다.

지금도 손주들 생일마다 손뜨개로 무언가를 떠준다. 그녀는 그것도 자기 나름의 자부심이라 했다. "사 온 건 표가 안 난다 이 말이여." 그렇게 정성 들인 것이 결국 남는 것이라고, 그녀는 믿는다. "그것이 맞제, 잉? 손주들도 지들 크믄 알아줄랑가 모르겄네."

두 사람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서로 달랐다. 그는 한참을 침묵한 뒤에야 사우디 이야기부터 꺼냈다. 그녀는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답을 정해둔 사람 같았다. 자부심을 묻는 말 앞에서도 두 사람의 말투는 유년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사막의 물 한 통과 손뜨개실 한 뭉치는, 얼핏 보면 닮은 데가 없는 두 사물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것을 아껴 쓰는 법을 알았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았다.

그는 이미 세상에 없는 어머니를 자랑의 자리에 세웠다. 그녀는 아직 학교에 다니는 자식들을 세웠다.

가게 문을 일찍 닫고 그가 사 온 통닭 한 마리, 그리고 손주 생일마다 그녀가 풀어놓는 실타래 하나. 두 사람 다, 자부심을 말하면서 정작 자기 이름은 부르지 않았다.

06

셔터가 내려가던 날

DAY 26 · DAY 27

철컹, 셔터 내려가는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새벽마다 뽑아 마시던 자판기 커피의 쓴맛이 있었다. 1997년 겨울, 나라 전체가 휘청였다. 정릉의 작은 철물점도 그 소용돌이를 비켜가지 못했다. 1997년과 1998년, 두 사람은 같은 위기를 각자의 자리에서 버텼다.

이현수

군대에 있을 때도 힘든 시절은 있었다. 강원도 전방, 겨울 칼바람이 매섭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었다고 그는 말했다.

가게를 늘리려 받은 대출이 발목을 잡았다. 며칠씩 셔터를 올리지 못했다.

> "그 셔터 내리는 소리, 철컹, 그 쇳소리가."

지금도 어디서든 셔터 소리가 나면 나도 모르게 몸이 굳는다고 했다.

> "자식들 학교는 우째 시키나, 가게는 접어야 되나."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다. 아내에게도 별말을 하지 않았다. 걱정을 끼치기 싫었다. "혼자 삭이는 기 버릇이라예, 그기."

가게를 지켜낸 것이 누구 덕이었는지 물었을 때, 그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그 사람 아니었으면 이 가게도 진작 문 닫았니더. 그거면 다 설명 되지 않니껴." 자신은 그저 말없이 버티기만 했을 뿐이라고 했다.

"나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버티기만 했는데, 그 사람은 뭐라도 하고 있었니더."

1999년, 규모를 반으로 줄여 다시 문을 열었다. 새 물건 대신 중고 철물과 재생 자재를 취급했다. 처음엔 남세스러웠다. "그거라도 안 하마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 말 하나로 스스로를 다잡았다. 낮에는 아이들 등록금을 계산하고, 밤에는 아내가 스웨터를 뜨는 옆에서 장부를 정리했다. "낮에는 애들 등록금 계산하고, 밤에는 마누라가 스웨터 뜨는 옆에서 장부 정리하고. 그래 버텄니더." 그래도 자식들 학교만큼은 한 번도 끊지 않았다.

그때의 자신에게 한마디를 청했다. "억수로 힘들었을 낀데, 잘 버텄다." 그리고 하나 더 있었다. "마누라한테 고맙다는 말, 그때 진작 했어야 됐는데."

윤말자

"이거는 좀 무거운 얘긴디, 그래도 물어봤응께 해야제." 그녀는 그렇게 운을 뗀 뒤 그 겨울 이야기를 시작했다. 새벽 어둑어둑한 시간에 자전거를 끌고 나가 신문을 돌렸다. 다 돌리고 나면 자판기 커피를 한 잔 뽑아 마셨다. "그 맛이 참 겁나게 썼는디도 그게 그렇게 달게 느껴지더라고." 낮에는 스웨터 부업을 했다. 실 뭉치를 풀어 코를 세는 일이 손끝을 다 갈라지게 했다.

아이들은 그때 엄마가 밤마다 뭘 하는지 잘 몰랐다. 그저 방에서 뭔가를 계속 뜨고 있으니 궁금해할 뿐이었다. 큰아이가 한번은 물었다. "엄

마 그거 나 줄라고 뜨는 거여?" 그녀는 그냥 웃기만 하고 대답하지 않았다. 팔 것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랬다.

남편은 그 시절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다. 물어봐도 "고마 됐다"는 말로 끝이었다. 어디선가 셔터 내리는 소리가 나면 그가 순간 몸이 굳는 것을 그녀는 보았다. 그래도 캐묻지 않았다. "그 사람 혼자 삭히는 걸 아니께." 아이들에게 힘든 티를 내지 않으려 밥상만큼은 평소와 똑같이 차리려 애썼다.

그녀는 이 대목에서 남편과는 다른 기억을 내놓았다. "그 사람은 아마 자기 혼자 버텼다고 생각할 것인디." 그러나 그녀의 생각은 달랐다. "나는 내가 새벽마다 나간 게 컸다고 생각한당께. 그것도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갑서."

그때의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도 남편과는 결이 달랐다. "말 없이도 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시절 부부의 말수가 서로 반대로 움직였다는 것도 기억했다. "남편은 그 시절에 말수가 더 줄었어." "나는 반대로 그때 더 말이 많아졌던 거 같애." "신기하제, 부부가 그런 것도 반대로가. 그래도 그 반대가 서로한테 맞았는지, 그렇게 넘어갔당께."

이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건너뛰어도 괜찮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다. 그는 그 단서 뒤로 한참 숨었다가, 창밖을 오래 보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그녀는 반대였다. 무거운 이야기라는 것을 스스로 먼저 인정하고, 국그릇 대신 찻잔을 오래 만지작거리면서도 곧장 말을 이었다. 서른 해 가까이 지난 일인데도 두 사람의 몸은 그 시절을 아직 기억하고 있는 듯했다.

여기에는 두 사람 모두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남편은 이미 아내의 덕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아내는 남편이 자기 혼자 버텼다고 여길 것이라 짐작하고 있었다. 셔터가 내려가 있던 그 며칠 동안 두 사람이 정확히 서로에게 하지 못한 말은, 어쩌면 지금 이 책 속에서야 처음으로 서로에게 닿는다.

두 사람 모두 그 시절을 "버텼다"는 말로 요약했다. 그러나 버틴다는 것의 모양은 서로 달랐다. 그는 셔터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녀는 새벽마다 자전거 페달을 밟는 방식으로. 셔터는 결국 다시 올라갔다. 그 셔터를 올린 손이 누구의 손이었는지는, 이 책에서도 끝내 하나로 좁혀지지 않는다.

07

달력 한 장, 손가락 하나

DAY 28 · DAY 31

벽에 붙은 달력 한 장. 어른의 손가락을 움켜쥔 아기 손가락 하나.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우리 집이 생겼다는 것을,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두 사람 중 한쪽만 기억하고 있다.

이현수

1980년, 사우디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으로 김치가 나왔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이었다. "인제 진짜 왔다 싶었니더." 삼 년 만이었다.

그 돈으로 낸 가게, 살림은 가게 딸린 방에서 시작했다. 번듯한 집은 결혼하고 아이들이 자란 한참 뒤의 일이었다. 이사하던 날은 짐 옮기느라 바빠 기분이랄 것도 없었다고 했다. "짐이라 캐도 몇 개 안 됐니더, 이불캉 그릇 몇 개캉." 대신 그날 저녁 아내가 방 벽에 무언가를 붙이던 장면만은 남아 있었다. 달력이었다. "우리 집이라꼬 표시하는 기, 그기 달력 하나 붙이는 걸로 됐니더 그때는." 지금도 정릉이다. 그것 하나는 확실하다고 했다.

1982년, 첫아이가 태어났다. 아들이었다.

그날 그는 가게에서 연락을 받았다. "나는 그 자리서 뭐, 손님이 있어가 계산부터 마치고 갔니더." 지금 생각하면 좀 그런가 싶기도 하다고, 그는 멋쩍게 덧붙였다. 그때는 그것이 순서였다.

가서 아이를 보는데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 났다. "손이 참 작대." 손가락 하나를 그의 손에 갖다 대자 아기가 꽉 쥐었다. 아내는 옆에서 울고 있었는데, 그는 눈물도 나지 않고 그저 멍했다. "마누라가 옆에서 우는데 나는 눈물도 안 나고 그냥 멍했니더."

그날 밤 이야기는 나중에야 알았다. "나중에사 안 사실인데 나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애 자는 거만 계속 봤다 카데예.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 뒤로 가게 문 여는 시간이 조금 짧아졌다. 아이를 보기 위해서였다. "그 뒤로 가게 문 여는 시간이 좀 짧아졌니더. 애 볼라꼬. 그기 내 나름의." 그는 거기서 말을 잇지 않았다.

윤말자

철물점 뒷방, 가게에 붙은 방 한 칸에서 살림이 시작됐다. 그 뒤 정릉 안쪽으로 옮겨 방 두 칸짜리를 얻던 날, 그녀는 그날을 진짜 "내 집"이 생긴 날로 기억한다. 세간살이라야 몇 개 없었는데도 그것이 그렇게 뿌듯했다.

그 집에서 1988년, 올림픽이 열렸다. 처음으로 컬러텔레비전을 들여놓고 남편과 나란히 앉아 개회식을 보았다. "그날 처음으로 옆에 이 사람 있는 게 참 편안하다 싶더라고." 그 전까지는 서로 적응하느라 바빴다고 했다. 골목 이웃들이 좁은 방에 모여 함께 봤고, 누구는 라면을 삶아 오고 누구는 과일을 깎아 왔다. 그 텔레비전은 지금도 고장 난 채 창고에 있다. 버리자 하면 남편은 늘 같은 말로 답한다. "냅두라."

1982년, 큰아이가 태어나던 날은 지금도 또렷하다. 조산원이 뒤늦게 뛰어오던 발소리, "다다다닥 하고." 그러다 아기 우는 소리가 딱 났다.

"그 소리 듣는 순간 뭐라 말을 못 하겄더라고, 그냥 눈물이 났어."

남편은 그 소식을 듣고도 가게 손님 계산을 다 마친 뒤에야 왔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크게 웃었다. "이 양반아 그게 그렇게 급한 일이여." 정작 와서는 아기 손가락을 붙잡고 아무 말도 못 한 채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밤, 남편은 한숨도 자지 않고 아기 자는 모습만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그 양반이 한숨도 안 자고 애 자는 것만 계속 보고 있더라고." 정작 본인은 그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그거는 내가 나중에 말해줬어, 지는 기억도 못 하드만." 그런 사람을 두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 거 보믄 밉다가도 정이 드는 거제."

두 개의 질문, 내 집과 첫 아이. 그는 둘 중 어느 쪽을 물어도 결국 가게 이야기로 돌아갔다. 그녀는 둘 중 어느 쪽을 물어도 결국 그 사람 이야기로 돌아갔다. 같은 세월을 지나오면서도, 그가 사물을 통해 시간을 붙드는 사람이라면 그녀는 사람을 통해 시간을 붙드는 사람이었다.

그가 잊어버린 그 밤을, 그녀는 마흔네 해가 넘도록 대신 기억해 왔다. 그가 말끝을 흐리며 "그기 내 나름의"라고만 하고 멈춘 자리에, 그녀가 대신 채워 넣은 문장이 있었던 셈이다.

달력 한 장과 손가락 하나. 둘 다 손에 잡히지 않는 순간을, 손에 잡히는 것으로 바꿔 놓은 사물이었다. 집이 생겼다는 것을 증명한 것은 문서가 아니라 벽에 붙은 달력 한 장이었고,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한 것도 서류가 아니라 자신의 손가락을 꽉 쥔 아기의 손이었다.

08

손이 떨리던 날, 그리고 마지막 말

DAY 39 · DAY 50

작은 몸 하나를 처음 안았을 때, 두 사람 모두 손이 떨렸다고 말했다. 무게 때문이 아니었다. 그리고 쉰 번째 날, 같은 손으로 마지막 말을 건넸다.

이현수

2012년, 첫 손자가 태어났다. "손자놈, 첫 손주라예." 그의 나이 예순 하나였다. 아이를 안았을 때 가벼웠는데, 팔은 이상하게 떨렸다. "억수로 가벼운데, 팔이 이상하게 떨리더라꼬예." 아들을 낳았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그때는 정신이 없었는데, 이번엔 좀 여유가 있었지예."

1988년, 올림픽 개회식을 보러 골목 이웃들이 다 모여들던 밤이 떠올랐다. 그 함성 소리는 아직도 귀에 남아 있다고 했다. 아들이 여섯 살, 딸이 세 살이던 그해와, 손자를 처음 안은 예순한 살의 그해가 그의 안에서 나란히 겹쳐졌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볼 때마다 그런 날들이 함께 떠오른다.

손주와 함께 하고 싶은 것을 물었다. 재롱잔치와 졸업식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했다. 삼 년 뒤 손녀가 태어났을 때도 그 원칙은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 더 있었다. "낚시나 한번 델꼬 가고 싶니더. 안동 고향 산도 한번 데려가 보고 싶고예." "지가 아부지 자란 데를 보마 뭔가 느끼는 기 있을랑가."

오십 일에 걸친 이 대화의 마지막 날, 같은 질문이 그에게 다시 던져졌다. 이 기록을 읽게 될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그는 한참 말이 없었다.

> "할 말이 뭐 있겠니껴."

다시 한참이 지나서야 말을 이었다. "그냥 밥 잘 챙기 무라. 그거밖에 없니더." 평생 사랑한다는 말은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오십 일 동안 이어진 이 대화에서도 그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그 말 안에 다 들어 있다고 했다. "밥 잘 챙기 무라, 그 안에."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일마들아. 할애비가 살아온 기, 뭐 대단한 거는 없니더. 그냥 밥 안 굶고, 자석들 학교 안 끊기고, 그거 하나로 여까지 왔니더. 그기 다니더."

윤말자

같은 해, 아들 내외의 첫아이였다. 처음 안았을 때 손이 벌벌 떨렸다.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 이 조그만 게 숨을 쉬는 게 신기해서." 무겁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떨렸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부터 손주 생일마다 손뜨개로 무언가를 떠주기로 마음먹었다. 삼 년 뒤 손녀가 태어났을 때도 다르지 않았다. 두 번째는 덜 떨릴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두 번째라고 안 떨릴 줄 알았드만 그게 아니더라고." 아이 하나하나가 처음인 것처럼, 손도 매번 처음처럼 떨렸다.

손주가 크면 함께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했다. "같이 고흥 한번 가보고 싶어, 잉. 유자밭도 보여주고, 우물 있던 자리도 가보고." 아파트에서만 자란 아이들이 그런 동네를 본 적이 없을 것이라 했다.

그날 사진 찍는다고 카메라를 들고 부산을 떨던 할아버지는, 정작 사진 속에서 하나도 웃지 않고 있었다. "속으로는 좋으면서 겉으로 표는 그렇게 안 나는 사람이여." 나중에 사진을 보여주자 그가 스스로도 어이없어하며 물었다. "와 이래 안 웃었노." 나이가 들어도 사람 성격은 안 변한다고, 그녀는 웃으며 덧붙였다.

같은 마지막 질문 앞에서, 그녀도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별거 없어. 그냥 다들 밥 잘 챙겨 먹고, 몸 안 아픈 게 제일이다, 그 말 밖에 없당께."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이었다. "우리 엄니가 나한테 늘 하시던 말인디, 이제 내가 손주들한테 하고 있네." 큰 것 하나 없어도 밥 잘 먹고 몸 성한 것, 사람이 살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그것이더라고 했다.

"유자꽃 냄새 나는 동네에서 태어나서, 서울까지 와서, 이 사람 만나서 밥 차리고 애 키우고, 그렇게 오십 년 가까이 살았어." 힘든 날도 많았지만 지나고 보니 다 살아지더라고 했다.

"옆에 이 양반은 말은 안 해도 늘 곁에 있어줬고, 그거면 됐다 싶어." 자식들에게 미안한 것도, 고마운 것도 많지만 그것을 다 말하자면 끝이 없다고 했다. 대신 한마디만 하겠다고 했다.

> "느그들 살아준 게 나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었다."

한 사람은 손주를 안동 산으로, 한 사람은 손주를 고흥 바다로 데려가고 싶어 한다. 각자 태어난 곳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오십 일에 걸친 이 긴 대화의 끝에서 결국 같은 말로 돌아왔다. 밥 잘 챙겨 먹으라는 말, 몸 성히 지내라는 말. 크지 않은 말이었지만,

두 사람이 마흔여섯 해 동안 서로에게 가장 자주 했던 말도 아마 그 말이었을 것이다.

> "그거면 됐어. 더 할 말은 없어. 그냥 가끔 이 목소리 한번씩 들어주믄, 그걸로 됐어."

밥 잘 챙기 무라

이현수·윤말자 부부의 쉰 날의 기억

50일 인터뷰 중 열두 날을 골라 엮었습니다.

이 책에 담긴 이야기는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의 부부를 바탕으로 제작된 마케팅 예시입니다. 이름, 고향, 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실제 흐름과 정합하도록 구성했으나 특정 개인·가족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MakeItClear 기억 프로젝트 · 비비드 에디션 · 2026년 8월